

한의학 미래예측(2000년~2010년) 문헌 분야 실현 최종 평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EBM연구팀¹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²
신현규¹ · 김용진^{2*}

Final Assessment Year of Realized on Forecasting Studies of the Literature Sector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2000-2010)

Shin Hyeun-kyoo¹ · Kim Yong-jin^{2*}

¹Herbal EBM Tea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²Dept. of Medical History, Colla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 Final assessment of realized on forecasting studies of the literature sector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2000-2010) revealed results as follows.

Methods : We investigated the related peer-reviewed papers and research project reports through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OASIS) of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KIOM) and several publishers.

Results : Of total five projects, two were realized and three were partially done. The projects 'It will be standardized by establishing the concept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 terms' and 'CDs containing traditional medicine books from China, Japan and Korea will be released' were decided to be realized. In addition to those, the projects 'Systematic database will be build up for TKM books', 'translation and annotation versions on TKM old books will be completed', and 'A wide range of literature related to traditional medicine of each Asian countries' were concluded to be partially realized. Five projects on predicting TKM in the year 2006-2007 analyzed in 1996 were evaluated as realized or partially realized. Likewise, the five predictions should be reviewed whether it will be necessary in the future after assessment on their realization.

Conclusion : Furthermore, it should be studies if the new projects are needed for the future in addition to the existing challenges.

Key words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ecast, Future, Literature

I. 서론

오늘날 한의학이 옛날의 의학이라는 정체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래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과거의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여 미래에 예상되는 대안을 설계하고 준비하여야한다¹⁾. 이미 정부는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미래 과학기술 예측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 과학기술 전 분야에 대한 미래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²⁾, 보건복지부도 보건의료분야만을 위한 미래 기술 예측을 하였다⁴⁾. 이 두 영역의 미래기술 예측 중에 한의학분야의 미래기술 예측 과제는 극히 일부 들어있다.

1996년 보건복지부 출연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현 교육과학기술부 출연기관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 분야만을 위한 연구 사업으로 '한의학 중장기 예측 기획 연구'를 통해 델파이(Delphi)기법으로 한의계와 비한의계 전문가 163명으로 부터 83개의 한의약 미래 과제를 도출하였다⁵⁾.

이⁶⁾는 83개 미래 과제 중에 전문가 집단이 예측한 실현년도를 기준으로 중간시점인 2005년까지 실현될 것으로 예측한 64개 과제에 대한 실현 여부를 중간 평가하였다.

2012년 현재 83개 미래 예측과제의 최종 실현년도가 종료되어, 이들 미래 예측 과제 중에서 한의

학 문헌과 관련된 5개에 대하여 최종 실현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예측과제 실현 시기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한의학 원전 분야의 지난 15년간의 업적을 되새기고, 문헌 분야 미래 예측의 실현여부를 점검하여 향후 미래의 한의학 문헌 분야의 중장기 방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한의학 문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12개 한의과대학 및 대학원 원전 교실의 현재 상황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보다 상호협력적이고 효율적이며 체계있는 문헌 연구 지표를 설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1996년 『한의학 중장기 예측기획연구』³⁾에서는 도출된 83개 한의학 미래 의료기술 과제 중 한의학 문헌 5개 연구 과제에 대한 중요도, 실현시기, 현재의 국내 수준, 과제 추진 주체 및 방법, 실현상의 저해요인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Table 1).

- ① 동양 각국의 한의학에 관련된 광범위한 원전 문헌이 정리된다.
- ② 한의학의 원전(內經, 傷寒論, 難經 등)등 고서에 대한 번역 및 주석서가 완성된다.
- ③ 한의학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표준화된다.
- ④ 한의학 서적에 대한 체계적인 DATA BASE가 구축된다.
- ⑤ 모든 중국, 일본, 한국의 한의서가 들어있는 한의학 서적 CD가 출시된다.

2. 연구방법

1) 조사 방법

5개 문헌 예측과제와 관련된 정부 및 민간의 연구사업과 논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의학연구원 전통의학 정보포털 DB인 OASIS (<http://oasis.kiom.re.kr>)에서 과제 관련 keyword로 검색하여 관

* 교신저자 : 김용진.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E-mail : king@dju.kr Tel : 042-280-2626
접수일(2012년 10월 16일), 수정일(2012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2012년 11월 16일)

- 1) 전득주. 미래학 입문 -그 이론과 실제-. 서울. 평민사. 1992. pp.75-78.
- 2) 김형수. 과학기술예측조사의 방법론과 활용방안.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6. p.23.
- 3) 신태영. 중장기 기술예측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 서울.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p.342.
- 4) 장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래 보건산업 기술예측 2001-2025. 서울. 2001. pp.78-82.
- 5) 성현제, 신현규. 한의학의 중장기 예측을 위한 기획 연구.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원. 1996. pp.1-152.
- 6) 이경구, 신현규. 한의약 미래예측(2000년-2010년)과제 중간 평가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7;28(1). pp.42-50.

Table 1. 한의학 문헌 예측과제의 전문가 측도

과제번호	중요도(%)					실현시기(%)			현재 연구 수준(%)					연구 추진 주체 및 방법(%)					실현상의 저해요인(%)				
	대	중	소	불필요		25	50	75	0	21	41	61	81	정부	한 의 계	민 간 기 업	산 학 연 협 동	국 체 공 동	과 학 기 술 적	한 의 학 적	제 도 적	자 금 인 력 적	기 타
①	48	47	5	0	2002	2004	2008	20	37	30	10	3	11	51	1	15	22	11	30	8	68	0	
②	53	41	5	1	2001	2004	2007	11	33	26	22	8	7	75	1	11	6	8	36	5	64	0	
③	69	26	5	0	2000	2003	2007	13	37	28	14	8	7	74	3	9	7	17	43	12	46	2	
④	57	38	5	0	2000	2003	2006	16	37	26	13	8	10	56	2	28	4	5	37	8	70	1	
⑤	35	53	12	0	2000	2003	2007	18	40	22	11	9	13	45	7	22	13	8	29	4	66	1	

Table 2. 한의학 문헌 예측과제의 중요도 순위

순위	예측과제명 (중요도 %)
1	한의학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표준화된다. (69%)
2	한의학 서적에 대한 체계적인 DATA BASE가 구축된다. (57%)
3	한의학의 원전(『內經』, 『傷寒論』, 『難經』 등)과 고서에 대한 번역 및 주석서가 완성된다. (53%)
4	동양 각국의 한의학에 관련된 광범위한 원전문헌이 정리된다. (48%)
5	모든 중국, 일본, 한국의 한의사가 들어있는 한의학 서적 CD가 출시된다. (35%)

련된 보고서와 논문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외 관련 웹사이트를 조사하였다. 또 문헌연구의 결과물이 서적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여러 출판사(대성 의학사, 법인문화사, 주민출판사, 의성당, 집문당, 한미의학, 정보사 등)의 홈페이지를 조사하였다.

2) 평가 방법

5개 문헌 예측과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 DB, 책자, 웹사이트, 논문의 산출량 및 질을 평가하여 실현 여부를 판정하였고, 실현 시기 년도는 1996년도 전문가 집단이 예측한 년도의3/4(75%)번째 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Ⅲ. 결 과

1. 전문가 측정 지표

1) 중요도 순위

전문가들은 각 한의학 문헌분야 5개 예측 과제 중 중요도 평가에서, ‘한의학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표준화된다.’를 가장 높은 순위로 제시하였다(Table 2).

2) 실현시기 및 방법, 저해요인 현황

조사 시점인 1996년을 기준으로 예측 과제의 실현시기로 1996년부터 2016년도 까지 설정토록 요구하였는데, 전문가 집단의 75%가 이들 5개 과제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실현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조사 당시 한국의 연구 수준으로는 원전 대한 번역 및 주석서 연구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응답자의 주류는 21-40%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예측과제의 추진 주도 조직 및 방법에 대해서는 한의계가 주도(60.2%)하여야 할 과제로 한의학 원전 번역, 용

Table 3. 한의학 문헌 예측과제의 실현시기, 추진 조직, 저해 요인 평가

실현시기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
과제수	-	-	5개 (100.0%)	-	-
추진 조직	정부	한의학계	기업	산학연	국제공동
과제수	9.6%	60.2%	2.8%	17.0%	10.4%
저해요인	과학기술적	한의학적	제도적	자금인력적	기타
과제 수	9.8%	35.0%	7.4%	62.8%	0.8%

어 개념 정립이 우선시 되었고, 한의학 서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나 CD발간 과제는 산·학·연 협동(17.0%)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예측 과제를 실현하는데 저해요인으로서는 자금과 인력(62.0%)이 모두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한의학적(35.0%)인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이들 문제에 대한 분석 내용은 없었다(Table 3).

2. 보고서 및 논문의 계량적 현황

한의학 문헌 관련 예측과제 5개의 중요도에 따라 정부 및 민간기관 정책 연구 보고서와 논문, 산출물인 웹사이트, DB, 서적, CD를 조사하였다(Table 4).

Table4. 예측 년도에 따른 최종 실현 년도 평가

예측 실현 년도	예측 과제	보고서 수	논문수	웹사이트, DB, 책자, CD(년도)	실현여부 (년도)
2006	한의학 서적에 대한 체계적인 DATA BASE가 구축된다.	21	12	-웹사이트 : 3개(대한한의사협회(1995), OASIS(2000), 한국전통지식포탈(2007))	일부실현 (2007)
2007	한의학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표준화된다.	4	11	-사전 : 2종 -DB : 1개	실현 (2006)
2007	한의학의 원전 등 고서에 대한 번역 및 주석서가 완성된다.	111		-주석서 : 17종 -번역서 : 82종 -기타 : 12종	일부실현 (-)
2007	모든 중국, 일본, 한국의 한의서가 들어있는 한의학 서적 CD가 출시된다.	700	5	-CD : 5종 -의서 : 700종(전자 파일)	실현 (-)
2008	동양 각국의 한의학에 관련된 광범위한 원전문헌이 정리된다.	2	0	-웹사이트 : 2개(대한한의사협회(1995), 한의고전명저총서(2007))	일부실현 (2007)

1) 한의학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표준화 된다.

한의학 용어에 대한 연구로는 18편의 논문과 7편의 보고서가 도출되었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한의학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과 분류, 용어 추출 방법, 이를 통일하거나 표준화하는 방안, 또 추출된 용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그 외 한의학 용어의 영문화 방법, 한의학 용어와 현대의학 용어와의 비교 및 국외의 전통의학 용어 구축 현황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이중 한의학 용어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만을 조사하였을 시에 총 11편(7)(8)(9)(10)(11)(12)(13)(14)(15)(16)(17)이 발표되었고, 연

구 사업을 통해서 4권의 연구보고서¹⁸⁾¹⁹⁾²⁰⁾²¹⁾가 발간되었다. 그 외 한의학 용어의 총 결집판인 사전으로는 1944년 『한의학용어대사전』²²⁾을 시작하여 2007년 『한의학용어대사전』²³⁾이 발간되었다.

2) 한의학 서적에 대한 체계적인 DATA BASE가 구축된다.

한의학 서적의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연구에 대하여 한의학연구원의 오아시스(<http://oasis.kiom>).

7) 권영규. 생리학 용어의 개념 통일과 객관화 방안. 현국학회지. 3(2). 1998. pp.117-121.

8) 김원찬, 전찬용, 문영춘, 김남일, 이충열, 이영중. 한의학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고찰. 暎園韓醫學研究所論文集. 7(1). 2004. pp.175-196.

9) 이병욱, 엄동명, 김정자, 박지하. 개념 중심 용어테이블을 이용한 효능 증식 본초 검색방법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4). 2007. pp.311-318.

10) 심범상. 국제한의학표준용어(WHO IST/WPRO) 및 국제한의학질병분류(ICTM/WPRO)의 개발 현황 보고.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1(3). 2007. pp.776-780.

11) 이병욱, 엄동명. 한의학 용어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3(2). 2009. pp.115-128.

12) 이병욱, 심범상, 엄동명. 한의학 용어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고전원문 제공 서비스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2(4). 2009. pp.167-176.

13) 차승준, 김상균, 송미영, 최윤정, 엄동명, 이병욱, 이규철. 한의학 용어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4(1). 2010. pp.59-76.

14) 김진현, 김철, 장현철, 전병욱, 이상준, 김상균, 송미영. UMLS내 전통의학 용어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3(6). 2010. pp.15-26.

15) 오용택, 이병욱, 김은하. 본초 효능 용어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3(5). 2010. pp.35-50.

16) 오용택, 전병욱, 장현철, 김창식, 김진현, 김상균, 송미영. 대표 술어로의 변환을 통한 처방 용어의 본초, 처방의 효능 용어 연계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4(5). 2011. pp.99-105.

17) 이주아, 이정섭, 강병갑, 고미미, 문태웅, 고호연, 박선영, 정희, 방옥선. 중풍 용어 표준화 및 영번역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중풍학회지. 11(1). 2010. pp.76-81.

18) 신현규. 한방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 제정(안)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00.

19) 엄동명. 한의학 용어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특허청. 2005.

20) 이병욱. 한의학 용어에 대한 용례 DB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21) 송미영. 온톨로지 기반 한의학 지능형 정보체계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22) 남산당. 한의학용어대사전. 서울. 남산당. 1978.

23) 영림사. 한의학용어사전. 서울. 영림사. 2007.

re.kr/main.jsp)에서 검색된 연구 논문은 5편²⁴⁾²⁵⁾²⁶⁾²⁷⁾²⁸⁾이 있고, 관련 사업을 통한 보고서가 21건²⁹⁾³⁰⁾³¹⁾³²⁾³³⁾³⁴⁾³⁵⁾³⁶⁾³⁷⁾³⁸⁾³⁹⁾⁴⁰⁾⁴¹⁾⁴²⁾⁴³⁾⁴⁴⁾⁴⁵⁾⁴⁶⁾⁴⁷⁾⁴⁸⁾⁴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24) 이병욱. DB를 활용한 문헌연구(1). 大韓韓醫情報學會誌. 2004. 10(1). pp.23-35.

25) 최환수, 이계현, 김용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통의학 DB구축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보. 2004. 25(3).

26) 안상우, 신순식, 이재원. 『醫方類聚』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998. 4(1). pp.27-45.

27) 강연석, 안상우.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원문의 전산처리. 韓國醫史學會誌. 2001. 14(1).

28) 강연석, 안상우.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원문의 전산처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1. 7(1). pp.67-76.

29) 안상우. 『의방유취醫方類聚』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1988.

30) 안상우. 전통한의치료법의 전산화 - 『醫方類聚』의 데이터베이스 구축(III). 한국한의학연구원. 1998.

31) 안상우. 전통한의처방의 전산검색시스템 구성; 醫方類聚의 데이터베이스 구축II(부록:CD). 한국한의학연구원. 1998.

32) 장일무. 전통동양약물데이터베이스 개발. 서울대학교. 1998.

33) 안상우. 전통한의치료법의 전산화 - 醫方類聚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III(부록: CD) -. 한국한의학연구원. 1999.

34) 안상우. 전통한의처방의 전산검색시스템 구성 -『醫方類聚』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II. 한국한의학연구원. 1999.

35) 안상우. 국외한의학술논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1999.

36) 장일무. 전통동양약물데이터베이스 新東醫藥寶鑑-日本語版開發. 바이오허브㈜. 2000.

37) 안상우. 국외한의학술논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2000.

38) 안상우. 의방유취 데이터베이스 구축(3). 한국한의학연구원. 2000.

39) 신순식. 한의 학술 정보화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0.

40) 안상우. 한의 학술 정보화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1.

41) 안상우.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2001.

42) 안상우. 향약 집성방의 데이터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2001.

43) 전병권. 한의학분야 웹 자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2.

44) 안상우. 한의 학술 정보화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3.

45) 안상우. 전통적 임상기술의 보호 및 DB 구축(I). 한국한의학연구원. 2003.

46) 이용태. 해양 유래 한방 약재의 DB화 연구. 동의대학교. 2005.

47) 김진웅. 한약제 과학화 연구 DB 구축. 서울대학교. 2006.

48) 강삼식. 한약제 평가 기술 과학화 DB 구축 및 관리. 서울

대한한의사협회 전산위원회로부터 한의학 학술 논문 DB를 이관받아 2000년부터 한의학연구원에서 한의학 학술정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현재 논문 23,182건, 연구보고서 2,553건가 수록되어있다.

한국전통지식포털(<http://www.koreantk.com/JZO100.jsp>)에서 DB 또는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는 7건⁵⁰⁾51)52)53)54)55)56)의 논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특허청 DB는 한의약관련 특허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어 2007년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으며, 논문 27,888건, 고문헌 4,637건이 수록되어있다.

3) 한의학의 원전(『內經』, 『傷寒論』, 『難經』 등)과 고서에 대한 번역 및 주석서가 완성된다.

그 동안 한의학 원전에 대한 번역 및 주석서가 이미 있어왔지만,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과제가 선정된 덕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과제의 최종 결과물이 서적인 만큼, 이에 대한 출판을 조사하니 다음과 같다.

대성의학사 (http://www.medibook.co.kr/shop_main/main_body.htm) 간행 원전의 주석서로는 신편 황제내경소문(이원기 저, 1994.05.01.)이

이미 있었고, 동의수세보원주해(이재마 저, 신흥일주해 역, 2000.05.30.)의 2종이 있다. 번역서로는 국역 빈호맥학 사언거요(박경 저, 2011.08.29.), 본경소증(추주 저, 임진석 역, 2001.06.15.), 침구대성(소재진 역, 2007.05.30.), 진단학권여(박경 역석, 2000.08.30.), 국역 중풍조변(이병국 저, 강희상 역, 1996.01.01.)의 5종이 있다.

법인문화사(<http://www.bubinbooks.co.kr/start.html>) 간행 원전의 주석서로는 현토 주석 유경(편집부, 2006.04.05.), 현토 주석 경약전서(이남구 현토, 2007.02.27.), 의학입문(명 이천 저, 진주표 역, 2009.04.13.), 주석 의학강목(진주표 역, 2010.03.13.)의 4종이 있다. 번역서로는 만병회춘(진주표 역, 2007.02.21.)과 신대역 동의보감(허준 저, 2012.09.28.)의 2종이 있다.

주민출판사⁵⁷⁾ 간행 원전의 주석서로는 류편황제내경(대한한의학원전학회 저, 2009.03.02.), 황제내경소문 왕빙주 상중하(윤창열 저, 2004.08.31.), 난경연구집성(윤창열 저, 2007.03.05.), 선호 영추(김선호 저, 2003.09.15.) 등의 4종이 있다. 번역서로는 본경소증 상하(김선호 역, 2012.09.17.), 본경서소요(김선호 역, 2012.09.11.), 본경속소(김선호 역, 2012.09.11.), 현토완역 주해상한론(김선호 역, 2012.03.05.), 현토완역 내경지요(윤창열 역, 2009.08.25), 현토완역 본초문답(김선호 역, 2009.03.15), 가씨상한론주(가금 저, 윤창열 외 2명 역, 2007.07.07), 난경본의(윤창열 역, 2009.03.11), 현토완역 상한관주집(우재경 저, 조학준 역, 2003.11.29), 현토완역 의학계원(장원소 저, 김용진 역, 2003.11.29), 현토완역 사진심법요결(오겸 저, 김용진 역, 2001.12.10), 현토완역 본초문답(당중해 저, 윤창열 역, 2001.01.29.) 등의 12종이 있다.

의성당⁵⁸⁾ 간행 원전의 주석서로는 황제내경 소문

대학교, 2007.

49) 강삼석. 한약재평가기술과학화 DB 구축 및 관리. 서울대학교, 2007.

50) 최환수, 이재현, 김용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통의학 DB구축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04. 25(3). pp.12-19.

51) 이정화. 고전 자료 디지털화사업에서의 신출판자 처리 개선방안.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4. 10(1). pp.1-14.

52) 신현규. 한의학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정보학회지. 1999. 5(1). pp.1-10.

53) 한방의료정보화 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천, 금경수, 황우준, 이시형, 전병욱. 대한한의정보학회지. 2004. 10(2). pp.114-188.

54) 최환수, 남봉현. 한의학 학위논문 정보서비스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2. 8(1). pp.45-53.

55) 차용석, 청강 김영훈 진료기록 데이터베이스모형 개발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6. 20(2). pp.279-291.

56) 최선미, 이수현, 윤유식, 김종열. 사상체질정보은행 데이터 항목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학회지. 2005. 17(1). pp.45-55.

57) 주민출판사는 홈페이지가 없어 네이버북스에서 검색하고, 출판서적 목록을 참고하였음.

http://book.naver.com/search/search.nhn?sm=sta_hyty_book&sug=&where=nexearch&query=%EC%A3%BC%EB%AF%BC%EC%B6%9C%ED%8C%90%EC%82%AC

58) 의성당(www.esdang.com)은 홈페이지에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네이버북스에서 검색하고, 출판서적 목록을 참고하였음.

(김달호 저, 2001.02.15.), 황제내경 영추 (김달호 저, 2002.02.10.), 쉽게 배우는 황제내경 소문해석 상하 (정종한 저, 2010.12.20.), 주해 한글 침구잡을 경(황보밀, 홍도현 저, 2012.05.25.)의 4종이 있다. 번역서로는 의학충중참서록 (장석순 저, 동신대한의대제1기졸업준비위원 역, 1999.02.13.), 의무원용(왕호고 저, 대전대한의대11기졸업준비위원회 역, 1999.02.13.), 소아약증직결(전을 저, 김달호 역, 2002.05.20.), 의역통설(당중해 저, 2002.09.20.), 한글 신농본초경(의성당편집부 저, 2012.09.12.)의 5종이 있다.

집문당⁵⁹⁾ 간행 원전의 주석서로는 현토국역 황제내경소문주석(저자 : 박찬국 역주, 2005.05.10.), 황제내경소문운기칠편주석 (박찬국 저, 2009.09.01.)의 2종이 있다.

집문당 간행 원전관련 번역서로는 국역온병조변(오국통 저, 정창현 역, 2004.02.08.), 국역온병중형(조소금 저, 이용범 역, 2004.09.20.), 의의병서역소(오국통 저, 경희대학교 신계내과학교실 역, 2005.05.20.), 의림 역소(서영태 저, 왕맹영 참정, 경희대학교 신계내과학교실 역, 2006.09.01.), 산변방(김도훈 역, 2006.09.15.), 금궤요략심전역해(경희대학교 신계내과학교실 역, 2008.07.01.)의 6종이 있다.

한미의학⁶⁰⁾ 간행 원전의 주석서로는 현토주석 경약전서(장개빈 저, 2011.11.30.)가 있다. 번역서로는 상한론주(가금 저, 안영민 역, 2012.09.20.), 상한론익(가금 저, 안영민 역, 2012.09.20.), 경약전서 세

트(장개빈 저, 안영민 역, 2011.04.30.), 상한론유방(서대춘 저, 안영민 역, 2011.04.10.), 활인서(주평 저, 안영민 역, 2010.11.10.), 상한명리론(성무기 저, 안영민 역, 2009.11.17.), 상한관주집(안영민 저, 2009.09.25.)의 7종이 있다.

성보사⁶¹⁾(www.seongbosa.co.kr)간행 원전관련 번역서로는 금궤요략역해(곽동열 저, 2002.04.29.), 금석 황제내경 소문 (배병철 저, 성보사, 2008.01.23.), 의림개작평역(곽동열 저, 성보사, 2008.10.01.)의 3종이 있다.

그 외 KRpia(www.krpia.co.kr)에 수록된 한의학 관련 서적으로는 중국본초도감, 한국약식물사전, 향암식물사전, 동의치료경험집성, 의림촬요, 의부집성, 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계, 한의학대사전, 향약집성방, 금궤비방, 동의사상신편, 동의수세보원의 12종이다⁶²⁾.

한편 한의학연구원은 전통의학과전국역총서사업을 통하여 42권의 한의서를 국역하였다. 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의가필용(醫家必用), 양무신편(兩無神編), 의방합부(意方合部) I, 의방합부(意方合部) II, 요약(要略), 주촌신방(舟村新方), 수세비결(壽世秘訣) I, 수세비결(壽世秘訣) II, 단곡경험방(丹谷經驗方) I, 단곡경험방(丹谷經驗方) II, 의본(醫本)·별초단방(別抄單方), 연소천지문답(演小天地問答), 신기천험(身機踐驗) I, 신기천험(身機踐驗) II, 치중지남(治腫指南)·치중비방(治腫秘方), 검요(檢要), 춘감록(春鑑錄) I, 춘감록(春鑑錄) II, 의가비결(醫家秘訣), 수진경험신방(袖珍經驗神方) I, 수진경험신방(袖珍經驗神方) II, 진우신방(晉寓神方), 진양신방(晉陽神方), 의휘(宜彙) I, 의휘(宜彙) II, 의휘(宜彙) III, 의휘(宜彙) IV, 의휘(宜彙) V, 석곡산고(石谷散稿)·석곡심서(石谷心書)·포상기문(浦上奇聞), 의감중마(醫鑑重磨) 목판본, 의감중마(醫鑑重磨) 필사본, 소문대요(素問大要),

http://book.naver.com/search/search.nhn?sm=sta_h ty.book&sug=&where=nexearch&query=%EC%9D%98%EC%84%B1%EB%8B%B9

59) 집문당(http://www.jipmoon.co.kr/)홈페이지와 네이버북스에서 검색하였음.

http://book.naver.com/search/search.nhn?sm=sta_h ty.book&sug=&where=nexearch&query=%EC%A7%91%EB%AC%B8%EB%8B%B9

60) 한미의학(http://www.hanmibook.co.kr/shop/main/index.php)은 홈페이지에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네이버북스에서 검색하고, 출판서적 목록을 참고하였음.

http://book.naver.com/search/search.nhn?sm=sta_h ty.book&sug=&where=nexearch&query=%ED%95%9C%EB%AF%B8%EC%9D%98%ED%95%99

61) 성보사(www.seongbosa.co.kr/) 홈페이지와 네이버북스에서 검색하였음.

http://book.naver.com/search/search.nhn?sm=sta_h ty.book&sug=&where=nexearch&query=%EC%84%B1%EB%B3%B4%EC%82%AC

62) http://libproxy.dju.ac.kr/43c93d2/_Lib_Proxy_Url/www.krpia.co.kr/ (대전대학교도서관의 KRpia사이트)

실험단방(實驗單方), 의원거강(依源學綱) I, 의원거강(依源學綱) II, 이석간경험방(李石澗經驗方), 약산호고종방촬요(若山好古種方撮要), 의심감(食醫心鑑), 우잠만고(愚岑謾稿), 우잠잡저(愚岑雜著), 본초정화(本草精華) I, 본초정화(本草精華) II,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치중방(治腫方), 본초유함요령(本草類函要領), 상한창화훈지집(桑韓唱和填集) I II, 상한창화훈지집(桑韓唱和填集) III 등이 있다⁶³).

이상을 종합하면 원전관련 주석서로는 17종이 있고, 원전관련 번역서로는 82종, 기타 한의학 관련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는 서적이 12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동양 각국의 한의학에 관련된 광범위한 원전 문헌이 정리된다.

1995년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문헌 정보란에는 총 1486권의 한의서에 대한 서적명, 이명, 출판국가, 저자, 내용, 출판년도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고, 이를 국가별로 분류하면, 중국 1486권, 일본 26권, 한국 1권이 수록되어있다.⁶⁴ 한의학연구원은 『역대한의학문헌의 고증(자료집)』과 『한국 한의학사의 재검립』 보고서를 통하여 조선시대 이전의 한의서에 대한 저자, 시기, 내용을 가지고 『高麗老師方』의 14권에 대한 서적을 정리하였다⁶⁵. 그 외 2007년 한의학연구원이 운영하는 ‘한의 고전 명저 총서’ 사이트에는 343권의 한의학 서적이 원서명, 분류, 언어, 시대 년도 별로 구성되어 있다.⁶⁶

5) 모든 중국, 일본, 한국의 한의서가 들어있는 한의학 서적 CD가 출시된다.⁶⁷

한국에서 발간된 한의학 서적 CD는 목과토의 『본초구진』, ㈜지식공학의 i-book 방약합편, 한의학연구원의 digital 온병집성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중국의 한의학 관련 CD로는 中華醫典(湖南電子音像出版社, <http://www.tcm-encyclopaedia.com>. issn 7-900352-22-8)과 本草綱目(白話精譯 彩色圖文版 附CD-ROM光盤一張. 作者: (明)李時珍 著, 良石 編譯. ISBN: 9787538012408, 7538012400. 出版社: 內蒙古科學技術出版社. 出版日期: 2005-2-1)이 있다.

기타 한의학과 관련된 것으로는 國學(http://www.guoxue.com/cp/gxbd_ml03_03.htm#03) 수록된 도서 목록과 中醫世家(<http://www.zysj.com.cn/lilunshuji/5index.html>) 등의 중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많은 자료가 수록되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한의학 서적의 원문은 CD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파일 형식으로 유통되고 있다. 그 예로 中醫瑰寶苑(<http://www.zygyby.com/a/pdf/zhongyi700.html>) 등의 사이트에 中醫書籍 700본이 있으며, 전자 파일로 작성되었다.

IV. 고찰

인간이 향후의 불확실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자각하듯이, 각 학문 영역에서도 각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또 자기 분야의 미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예측기법중의 하나인 델파이 기법을 통해 한의계의 미래를 예측 조사한 83개 과제 중에 한의학 문헌과 관련된 5개 예측과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조사 시점 1996년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과연 얼마나 예측과제들이 실현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전문가들은 2006년도에 한의학 서적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고 하였다. 이 예측과제는 한의학 고전 서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주된 관점이라 볼 수 있다. 한의학 서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련된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33건 있었지만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다만 한의학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한의학 자료를 파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원문을 읽고 참고하는데 도움을

63) 한국한의학연구원 전통국역총서 : <http://www.kiom.re.kr/customer/origin.jsp?menu=nm0403>

64) 대한한의사협회. <http://www.akom.org/main/2010.10.03>.

65) 신순식. 한국한의학사의 재검립(上)(下) 1995.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원. pp.1-332.

66) 한의학교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2010.10.12>.

67) 안상우. 국외한의학술논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건복지부. 1999. 2000.

준 면이 있다. 현재 사이트 3개, 즉 대한한의사협회(1995), OASIS(2000), 한국전통지식포탈(2007)에서 한의학 서적 및 논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한의학 고전 서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진하여 일부 실현으로 평가하고, 한국전통지식포탈이 서비스를 시작한 2007년을 실현년도로 삼았다.

2007년도에 실현된다는 한의학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표준화된다는 예측과제는 학문의 기반이자 특이성이 용어의 정의에 있는 만큼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이 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처음에는 한의학 용어의 추출, 이에 대한 통일안과 표준화에 지침 및 각 영역별에 대한 용어 연구가 시작되었다. 권⁶⁸⁾과 김⁶⁹⁾은 한의학 용어에 대한 표준 통일안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⁷⁰⁾, 김⁷¹⁾, 오⁷²⁾ 등은 본초, 처방 용어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이⁷³⁾는 질병 용어인 증풍에 대한 용어 정립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외의 연구는 한의학 문헌에 있는 용어를 추출, 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⁷⁴⁾⁷⁵⁾⁷⁶⁾.

전통의학 용어에 대한 대외적인 연구로 심⁷⁷⁾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전통의학 용어 구축 사업과 국제질병사인분류에서의 한의부분 분류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하였고, 김⁷⁸⁾은 미국국립의학도서관 검색시스템인 UMLS(The Unified medical language System)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의학 용어 중 기초개념, 침구 경혈, 약재, 처방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연구 사업으로는 질병용어에 대한 분류 방법과 체계에 대하여 신⁷⁹⁾과 엄⁸⁰⁾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⁸¹⁾는 한의학 용어를 가지고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송⁸²⁾은 한의학 각 종 영역의 용어를 추출하여 연결하는 온토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 과제의 주된 목적은 범 한의계가 한의학 용어에 대한 정의, 분류, 개념을 합의하고 이 결과를 공식적으로 한국 표준 한의학 용어로 인정하여 대한한의사협회나 대한한의학회가 공포하는 것이다. 다행히 대한한의학회가 2000년부터 한의학용어 표준화 사업을 하여 2006년 한의학용어집을 발간하였다. 또 이러한 역할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6년 한의학 용어 및 정보 표준화위원회를 설치하였다⁸³⁾. 따라서 이 예측과는 2006년도에 실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07년도에 한의학의 원전 등 고서에 대한 번역

- 68) 권영규. 생리학 용어의 개념 통일과 객관화 방안. 현곡학회지. 1998. 3(2). pp.117-121.
- 69) 김원찬, 전찬용, 문영춘, 김남일, 이충열, 이영중. 한의학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고찰. 際園韓醫學研究所論文集. 2004. 7(1). pp.175-196.
- 70) 이병욱, 엄동명, 김정자, 박지하. 개념 중심 용어데이터를 이용한 효능 중심 본초 검색방법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4). pp.311-318.
- 71) 김진현, 김철, 장현철, 전병욱, 예상준, 김상균, 송미영. UMLS내 전통의학 용어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6). pp.15-26.
- 72) 오용택, 이병욱, 김은하. 본초 효능 용어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5). pp.35-50.
- 73) 이주아, 이정섭, 강병갑, 고미미, 문태웅, 고희연, 박선영, 정희, 방옥선. 증풍 용어 표준화 및 영번역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중풍학회지. 2010. 11(1). pp.76-81
- 74) 오용택, 전병욱, 장현철, 김창석, 김진현, 김상균, 송미영. 대표 술어로의 변환을 통한 처방 용어의 본초, 처방의 효능 용어 연계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5). pp.99-105.
- 75) 이병욱, 심범상, 엄동명. 한의학 용어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고전원문 제공 서비스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4). pp.167-176.
- 76) 차승준, 김상균, 송미영, 최윤정, 엄동명, 이병욱, 이규철.

- 한의학 용어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0. 14(1). pp.59-76.
- 77) 심범상. 국제한의약표준용어(WHO IST/WPRO) 및 국제한의학질병분류(ICTM/WPRO)의 개발 현황 보고.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7. 21(3). pp.776-780.
- 78) 김진현, 김철, 장현철, 전병욱, 예상준, 김상균, 송미영. UMLS내 전통의학 용어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6). pp.15-26.
- 79) 신현규. 한방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 제정(안)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00.
- 80) 엄동명. 한의학 용어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특허청. 2005.
- 81) 이병욱. 한의학 용어에 대한 용례 DB 구축.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 82) 송미영. 온토로지 기반 한의학 지능형 정보체계 연구.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 83) 심범상. 국제한의약표준용어(WHO IST/WPRO) 및 국제한의학질병분류(ICTM/WPRO)의 개발 현황 보고.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7. 21(3). pp.776-780.

및 주석서가 완성된다고 하였다. 한의학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내경』, 『난경』, 『상한론』 등에 대한 번역 및 주석서가 많이 발간되어 원전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부실현으로 평가하고, 년도는 확정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현황으로는 한의학 관련 고서는 매우 많은데 이에 대한 번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하겠다. 한의학계 및 한의학연구원에서 한의학 원전 고서에 대한 번역은 계속하고 있고, 이 과정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2007년도에 모든 중국, 일본, 한국의 한의서가 들어있는 한의학 서적 CD가 출시된다고 예견하였다. 현재는 한의학 서적이 CD의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hwp나 doc형식의 파일로 인터넷 매체에 유통되고 있고, 700여 종류의 한의서가 유통되어 거의 모든 한의학 문헌이 파일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당시보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CD가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역할이 이미 없어진 상태이므로, 실현으로 평가하고 년도를 결정하지 않았다.

2008년도에 실현된다는 동양 각국의 한의학에 관련된 광범위한 원전문헌이 정리된다는 예측과제는, 중국, 한국, 일본의 전통의학 문헌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검색할 수 있게 정리된 책자나, DB, 웹사이트를 말하는 것으로 전제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의과학 책을 제외하고는 한국 한의서 문헌 정리에 대한 연구 사업은 없었으나, 중국, 일본 한의서에 대한 정리 연구 사업은 없었다. 다만 한의사협회의 문헌정보(1995)와 한의학연구원 '한의 고전 명저 총서' 웹사이트를 통한 일부 결과물이 있어 일부실현으로 평가하고, 한의고전명저총서 웹사이트 서비스 시작년도인 2007년을 실현년도로 결정하였다. 향후 어느 DB나 웹사이트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한의서가 정리되어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연구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5개 미래 예측과제의 실현 여부를 고찰하면, 지난 15년 동안 한의학 학문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 예측 과제가 실현된 것이 중요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의학 문헌(서적)에 대한 정리, DATA BASE구축, CD 출시 등의 3개 예측 과제는

동일한 내용의 예측과제라고 판단된다. 즉 한국, 중국, 일본의 광범위한 한의학 고서 원전을 문헌 정리하여, 이를 DB구축하고, CD로 만들어 출시하는 동일한 사업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 동일한 3개 예측과제에 대하여 그동안 실현을 위한 여러 논문과 사업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다만 고전 문헌보다는 한의학 논문 분야에 대한 정리, DB구축, 웹사이트 제공이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과제인 한의학 고전에 대한 번역 및 주석서 연구는 그동안 결과물이 도출되었고, 향후에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대한한의학원전학회는 5개 예측과제에 대한 최종 평가를 검토한 후, 향후에도 필요한 과제인지에 대한 고민과 이들 과제들을 제외하고 미래 한의학 문헌 분야를 위하여 새로운 과제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V. 결 론

한의학 미래예측(2000년~2010년) 문헌 분야 5개 예측과제에 대한 실현 최종 평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한의학 서적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는 과제는 고전 한의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진하여 일부 실현으로 평가하였다.
2. 2006년도 대한한의학회가 한의학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용어집을 발간하였고, 이를 관리하는 위원회까지 설치하였다. 따라서 한의학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표준화된다는 과제는 실현으로 평가하였다.
3. 한의학의 원전 등 고서에 대한 번역 및 주석서가 완성된다 라는 과제는 계속 진행되어야 할 과제여서 일부실현으로 평가하였다.
4. 중국, 일본, 한국의 한의서가 들어있는 한의학 서적 CD가 출시된다고 예견하였다. 그 동안 700여종의 한의서가 전자화일 형태로 되었다. 또 조사 당시보다 기술의 발달로 CD가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역할이 없어진 상태이므로,

실현으로 평가하였다.

5. 동양 각국의 한의학에 관련된 광범위한 원전 문헌이 정리된다는 예측과제는, 일부 검색과 번역물이 있어 일부실현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한의학 문헌 분야 5개 예측과제는 실현 여부에 대한 평가 후 향후에도 필요한 미래 과제 인지에 대한 검토와 이 기존 과제들 이외에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과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표준한방처방EBM구축사업(K12031)에서 논문 심사 및 게재 비용을 지원받았음.

참고문헌

<논문>

1. 강삼식. 한약재 평가 기술 과학화 DB 구축 및 관리. 서울대학교. 2007.
2. 강삼식. 한약재평가기술과학화 DB 구축 및 관리. 서울대학교. 2007.
3. 강연석, 안상우.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원문의 전산처리. 韓國醫史學會誌. 2001. 14(1).
4. 강연석, 안상우.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원문의 전산처리.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2001. 7(1). pp.67-76.
5. 권영규. 생리학 용어의 개념 통일과 객관화 방안. 현곡학회지. 1998. 3(2). pp.117-121.
6. 권영규. 생리학 용어의 개념 통일과 객관화 방안. 현곡학회지. 3(2). 1998. pp.117-121.
7. 김원찬, 전찬용, 문영춘, 김남일, 이충열, 이영중. 한의학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고찰. 暎園韓醫學研究所論文集. 7(1). 2004. pp.175-196.
8. 김원찬, 전찬용, 문영춘, 김남일, 이충열, 이영중. 한의학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고찰. 暎園韓醫學研究所論文集. 2004. 7(1). pp.175-196.
9. 김진웅. 한약재 과학화 연구 DB 구축. 서울대학교. 2006.
10. 김진현, 김철, 장현철, 전병욱, 예상준, 김상균, 송미영. UMLS내 전통의학 용어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6). p.15-26.
11. 김진현, 김철, 장현철, 전병욱, 예상준, 김상균, 송미영. UMLS내 전통의학 용어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6). pp.15-26.
12. 김진현, 김철, 장현철, 전병욱, 예상준, 김상균, 송미영. UMLS내 전통의학 용어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3(6). 2010. pp.15-26.
13. 김형수. 과학기술예측조사의 방법론과 활용방안.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6. p.23.
14. 성현제, 신현규. 한의학의 중장기 예측을 위한 기획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1996. pp.1-152.
15. 송미영. 온톨로지 기반 한의학 지능형 정보체계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16. 송미영. 온톨로지 기반 한의학 지능형 정보체계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17. 신순식. 한의 학술 정보화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0.
18. 신순식. 한국한의학사의 재정립(上)(下) 1995.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원. pp.1-332.
19. 신태영. 중장기 기술예측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 서울.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p.342.
20. 신현규, 한방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 제정(안)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00.
21. 신현규, 한방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 제정(안)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00.
22. 신현규. 한의학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정보학회지. 1999. 5(1). pp.1-10.
23. 심범상. 국제한의학표준용어(WHO IST/WPRO) 및 국제한의학질병분류(ICTM/WPRO)의 개발 현황 보고.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7. 21(3). pp.776-780.
24. 심범상. 국제한의학표준용어(WHO IST/WPRO) 및 국제한의학질병분류(ICTM/WPRO)의 개발 현황 보고.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7. 21(3). pp.776-780.

25. 심범상. 국제한의약표준용어(WHO IST/WPRO) 및 국제한의약질병분류(ICTM/WPRO)의 개발 현황 보고.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1(3). 2007. pp.776-780.
26. 안상우. 국외한의약술논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약연구원. 1999.
27. 안상우. 국외한의약술논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약연구원. 2000.
28. 안상우. 의방유취 데이터베이스 구축(3). 한국한의학연구원. 2000.
29. 안상우. 전통적 임상기술의 보호 및 DB 구축(I). 한국한의학연구원. 2003.
30. 안상우. 전통한의처방의 전산검색시스템 구성 - 『醫方類聚』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II. 한국한의학연구원. 1999.
31. 안상우. 전통한의처방의 전산검색시스템 구성: 醫方類聚의 데이터베이스 구축II(부록:CD). 한국한의학연구원. 1998.
32. 안상우. 전통한의치료법의 전산화 - 醫方類聚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III(부록: CD) -. 한국한의학연구원. 1999.
33. 안상우. 전통한의치료법의 전산화 - 『醫方類聚』의 데이터베이스 구축(III). 한국한의학연구원. 1998.
34. 안상우. 한의 학술 정보화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1.
35. 안상우. 한의 학술 정보화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3.
36. 안상우. 향약 집성방의 데이터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2001.
37. 안상우. 『의방유취醫方類聚』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1988.
38. 안상우.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2001.
39. 안상우, 신순식, 이재원. 『醫方類聚』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998. 4(1). pp.27-45.
40. 안상우. 국외한의약술논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울. 보건복지부 1999. 2000.
41. 엄동명. 한의학 용어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 특허청. 2005.
42. 엄동명. 한의학 용어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 특허청. 2005.
43. 오용택, 이병욱, 김은하. 본초 효능 용어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5). pp.35-50.
44. 오용택, 이병욱, 김은하. 본초 효능 용어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3(5). 2010. pp.35-50.
45. 오용택, 전병욱, 장현철, 김창석, 김진현, 김상균, 송미영. 대표 술어로의 변환을 통한 처방 용어의 본초, 처방의 효능 용어 연계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5). pp.99-105.
46. 오용택, 전병욱, 장현철, 김창석, 김진현, 김상균, 송미영. 대표 술어로의 변환을 통한 처방 용어의 본초, 처방의 효능 용어 연계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4(5). 2011. pp.99-105.
47. 이경구, 신현규. 한의약 미래예측(2000년-2010년)과제 중간 평가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7;28(1). pp.42-50.
48. 이병욱 한의학 용어에 대한 용례 DB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49. 이병욱, 심범상, 엄동명. 한의학 용어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고전원문 제공 서비스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4). pp.167-176.
50. 이병욱, 심범상, 엄동명. 한의학 용어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고전원문 제공 서비스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2(4). 2009. pp.167-176.
51. 이병욱, 엄동명, 김정자, 박지하. 개념 중심 용어테이블을 이용한 효능 중심 본초 검색방법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4). 2007. pp. 311-318.
52. 이병욱, 엄동명, 김정자, 박지하. 개념 중심 용어테이블을 이용한 효능 중심 본초 검색방법

-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4). pp. 311-318.
53. 이병욱, 엄동명. 한의학 용어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3(2). 2009. pp.115-128.
54. 이병욱, 엄동명. 한의학 용어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09. 13(2). pp.115-128.
55. 李丙旭. DB를 활용한 문헌연구(1). 大韓韓醫情報學會誌. 2004. 10(1). pp.23-35.
56. 이병욱. 한의학 용어에 대한 용례 DB 구축. 한국한의학회지. 2010.
57. 이용태. 해양 유래 한방 약재의 DB화 연구. 동의대학교. 2005.
58. 이정화. 고전 자료 디지털화사업에서의 신출한자 처리 개선방안. 한국한의학회지. 2004. 10(1). pp.1-14.
59. 이주아, 이정섭, 강병갑, 고미미, 문태웅, 고희연, 박선영, 정희, 방옥선. 증풍 용어 표준화 및 영번역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중풍학회지. 11(1). 2010. pp.76-81.
60. 장일무(바이오허브㈜). 전통동양약물데이터베이스 新東醫藥寶鑑-日本語版 開發. 2000.
61. 장일무. 전통동양약물데이터베이스 개발. 서울대학교. 1998.
62. 장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래 보건산업 기술예측 2001-2025. 서울. 2001. pp.78-82.
63. 전득주. 미래학 입문 -그 이론과 실제-. 서울. 평민사. 1992. pp.75-78.
64. 전병권. 한의학분야 웹 자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회지. 2002.
65. 차승준, 김상균, 송미영, 최윤정, 엄동명, 이병욱, 이규철. 한의학 용어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4(1). 2010. pp.59-76.
66. 차승준, 김상균, 송미영, 최윤정, 엄동명, 이병욱, 이규철. 한의학 용어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구축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0. 14(1). pp.59-76.
67. 차용석. 청강 김영훈 진료기록 데이터베이스모형 개발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6. 20(2). pp.279-291.
68. 최선미, 이수현, 윤유식, 김종열. 사상체질정보은행 데이터 항목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 17(1). pp.45-55.
69. 최환수, 이제현, 김용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통의학 DB구축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보. 2004. 25(3).
70. 최환수, 이제현, 김용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통의학 DB구축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04. 25(3). pp.12-19.
71. 한방의료정보화 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천, 금경수, 황우준, 이시형, 전병욱. 대한한의정보학회지. 2004. 10(2). pp.114-188.
72. 한의학 학위논문 정보서비스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최환수, 남봉현. 한국한의학회지. 2002. 8(1). pp.45-53.

<단행본>

1. 남산당. 한의학용어대사전. 서울. 남산당. 1978.
2. 영림사. 한의학용어사전. 서울. 영림사. 2007.

<기타>

1. 네이버북스. <http://book.naver.com/> 2012.10.12.
2. 대전대학교도서관의 KRpia. http://libproxy.dju.ac.kr/43c93d2/_Lib_Proxy_Url/www.krpia.co.kr/ 2010.10.13.
3. 대한한의사협회. <http://www.akom.org/main/> 2010.10.13.
4. 대한한의사협회. <http://www.akom.org/main/> 2010.10.13.
5. 성보사. <http://www.seongbosa.co.kr/> 2010.10.15.
6. 의성당. <http://www.esdang.com/> 2010.10.15.
7. 집문당. <http://www.jipmoon.co.kr/> 2010.10.15.
8. 한국한의학회지. <http://www.kiom.re.kr/customer/origin.jsp?menuf=nm0403/> 2010.10.15.
9. 한미의학. <http://www.hanmibook.co.kr/shop>

/main/index.php/ 2010.10.15.

10. 한의학고전명저총서. <http://jsik.kiom.re.kr/> 2010.10.12.